'코로나 감옥' 나온 BTS, 오프라인 투어 앞두고 '화끈한 전초전'

24일 오후 올림픽주경기장서 온라인 콘서트

뷔 종아리 근육통증, 상당수 곡 의자서 소화

24일 오후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온라인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본격적인 무대의 시작을 앞두고 선보인 오프닝 영상이 의미심장했다.

방탄소년단 일곱 멤버가 감옥에 갇힌 듯한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곳을 탈출한 비장의 키는 방탄소년단 멤버 뷔가 가지고 있었다. 그의 입안에 수갑을 풀 수 있는, 클립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이날 본격적인 공연 시작 전 멤버들은 실제 무대 위에서 쇠창살에 갇힌 채 등장했다. 댄서들이 망치로 걸쇠를 부순 뒤 멤버들은 마침내 자유가 됐다. 그건 코로나19라는 감옥을 뚫고 나온 방탄소년단 멤버들 그리고 우리를 상징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본격적인 오프라인 월드 투어를 앞두고 온라인 콘서트로 화끈한 전초전을 펼쳤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11월 27일과 28일, 12월 1일과 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LA'를 연다. 티켓은 단숨에 매진됐고, 일부 암표는 가격이 1000만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공연은 1년만. 하지만 작년 온라인 콘서트는 다른 장소에서 열었던 만큼,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무대에 오른 건 2년 만이다.

대규모 무대 연출이 가능한 곳이라, 화려하고 화끈한 효과가 눈길을 끌어올랐다. '온' 다음에 이어진 '불타오르네' 무대에선 멤버들 뒤로 불이 끊임없이 타올랐다. '쩔어' 무대에선 멤버들이 카메라를 직접 들어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콘서트였지만 무대 곳곳을 쓰는 연출도 돋보였다. 대형 침대가 등장했고 멤버들은 수시로 중앙까지 뛰어다녔다.

부드러운 안무가 돋보이는 '블랙 스완'은 멤버들과 댄서들의 합이 돋보였다. 날개짓을 하는 듯한 댄서들의 동선이 온라인 공연임에도 눈에 확 들어왔다.

'다이너마이트' '버터' 등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곡들은 브라스가 가미된 라이브 밴드의 연주와 함께 들려주기도 했다.

멤버들의 열정이 담긴 무대가 계속되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오일남 할아버지 성대모사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라고 너스레 떠는 멤버들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참석한 제76회 유엔(UN) 총회 연설 모습도 공개됐다. 당시 "당연하다고 여겼던 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말이 다시 새겨졌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이번 콘서트의 주제곡이자, 마지막 곡인 '퍼미션 투 댄스' 등 총 20여곡을 소화했다.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개별 무대가 없었다는 점이 지난 공연들과 차별점이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멤버가 함께 하는 것이 이번 콘서트 투어의 콘셉트다.

다만 뷔가 종아리 근육 통증으로 이날 상당수 무대를 의자에 앉아 소화, 계획했던 일곱 멤버의 무대가 완전하지는 않았다. 뷔 역시 콘서트 말미에 "즐겁지 않고 속상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사실 오늘 콘서트를 하면 진짜 행복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창피하게도 본 무대에선 앉아만 있었다"면서 "멤버들이 춤 추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고, 그래서 아쉬웠어요. 제가 뭐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에 뒤숭숭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음엔 몸 관리, 정신 관리 똑바로 해서 남은 투어 때는 오늘 보여드리지 못한 모습들 충분히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콘서트는 개인(무대)이 없어요. 일곱명이 시작과 끝을 다 담당하죠. 그 부분도 설렜는데, 제가 빠져 아쉬웠죠. 다음엔, 저까지 꽉 채운 일곱 멤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코로나19 기간 투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많이 아쉬워했다. 작년 9월 '다이너마이트'를 시작으로 한국 가수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 기록을 쓰긴 했지만 팬덤 '아미'를 직접 만나지 못해 안타까웠다는 것이다.

그래서 RM은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사실 (코로나19로 공연을 못한 지) 2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남은 동력이 있나.' 개인으로서 BTS 멤버 RM으로서나, 나아가려면 동력이 필요해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죠. 점점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고백했다.

코로나19가 안겨준 무력감을 극복하려고 운동도 시작하고, 다른 새로운 것도 시작했는데 이제 거의 한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저희 정체성이 뭔지 잊어버릴 거 같았고 (코로나19로 인해 무대가 멈추는 것이) 반복 돼 힘들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곱 멤버 모두 이날 공연을 엄청 기다렸다. RM은 "5만명으로 꽉 차던 이곳에서 하면 (동력을) 알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종아리 근육통으로) 태형이도 제대로 못 했고, 여러분도 안 계시고 조금 아쉽지만 준비한 걸 오프라인에서 교감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긍정했다.

"전날 리허설을 영상으로 찍어서 모니터를 했는데 보여지는 에너지가 저희가 쓴 절반도 안 되더라고요. 오랜만의 콘서트라 과격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됐으면 해요. 실제로 보면 다르거든요. 뷥 때까지 지치지 않고 이곳 주경기장에서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정국의 좌우명은 '열정 없이 사느니 죽는 것이 낫다'다. 그래서 그간 공연을 못해 "제 안에 열정이 꺼져 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뭘 하든지 영혼 없이 했다"고 털어놓았다. "생각이, 열정이 식어가는 것을 몰랐는데 오늘 느낌이 오더라고요. 오늘 이 무대를 하고 나서, 빨리 여러분에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서른살이 된 진은 "오늘 공연을 하면서 '음 이탈'이 났어요. 투어를 다닐 때는 체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투어를 안 한지 오래 돼 체력이 부족하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제 서른살이 되니까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다리도 쑤시고, 팔도 쑤시고요. 물론 정신력이 중요하지만, 몸이 더 쑤시기 전에 공연을 더 많이 다니면서 체력을 유지하고 싶어요. 곧 좋은 공연으로 뵙겠다"고 덧붙였다.

올림픽 주경기장이 텅텅 비어 있어서 마음도 텅텅 비는 것 같다는 제이홉도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곡 '봄날' 가사대로 만들어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볼 날이 머지 않았다"고 기대했다.

슈가는 "오늘 공연을 통해 잊어먹었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면서 "전세계적으로 상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다음 번엔, 주경기장에서 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아쉽겠지만, 전혀 아쉬워하지 마세요"라고 희망의 만남을 약속했다.

"아무리 예능이라지만" '런닝맨' 가학성 논란

"아무리 예능이라지만 너무 세게 때린다"

'런닝맨'이 가학성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4일 오후 방송된 '런닝맨'에서는 '밀가루 청기백기' 게임이 진행됐다.

지석진과 전소민이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이들은 밀가루가 묻은 장갑을 끼고 진행자 유재석의 말에 따라 경기했다.

먼저 준비게임에서 지석진과 전소민은 "청기 펀치"라는 말에 따라 파란 밀가루가 잔뜩 묻은 장갑으로 서로의 얼굴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전소민이 주저앉으며 "저를 남자로 생각하는 거예요?"라고 당황함을 보였다.

이어진 본게임에서도 이들은 장갑으로 서로의 얼굴을 때렸고 전소민은 "근데 (지석진) 오빠 진심으로 때린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세게 때린다"고 반응했다. 이에 지석진은 "아니다. 게임을 열심히 할 뿐"라고 해명했다.

김종국과 정준하의 맞대결을 이어졌다. 김종국의 강한 펀치를 맞은 정준하는 휘청거렸고 이를 본 하하는 "(밀가루) 맛있게 잘 먹네. 맛집이다, 맛집"이라고 놀렸다.

결국 계속 김종국의 펀치를 맞은 정준하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고 눈가가 충혈된 모습을 보였다. 김종국은 "막 휘둘러도 막 맞는다"며 웃었고 이를 들은 멤버들도 폭소했다. 이후 정준하는 "좀 아프다. 이거 (원래) 재밌는 게임 아니냐. 눈알이 나온 것 같다"며 아파했다.

해당 방송을 접한 시청자들은 가학적인 게임 방식에 불편함을 드러냈다. 네이버TV '런닝맨' 누리집에는 "아이들이 보는데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도 되냐", "정준하 눈 빨개진 거 보니 마음 안 좋다", "아무리 예능이라지만 너무 세게 때린다"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런닝맨'은 지난해 11월에도 가학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출연자들은 제한시간 1분 동안 얼굴에 고무줄을 최대한 많이 끼우는 게임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출연자들의 얼굴이 망가지고 기괴하게 변했다. 고무줄이 끊어질 경우 다칠 위험도 다분해 안전불감증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엔하이픈 '어퍼 사이드 드리밍', 엠넷서 최초공개

한터차트 기준 첫 주 판매량 81만 장…자체 최고 기록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어퍼 사이드 드리밍(Upper Side Dreamin')' 무대를 최초 공개한다.

25일 소속사 빌리프랩은 엔하이픈이 오는 28일 Mnet '엠카운트다운'에서 신곡 '어퍼 사이드 드리밍' 무대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어퍼 사이드 드리밍' 은 일렉트로 펑크 장르의 곡으로, 욕망과 현실 속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는 소년의 마음을 담았다.

소년은 부촌 '어퍼 사이드(Upper Side)'를 바라보며, 자신도 성공하여 부촌에 살고 싶다는 마음과 실제 그렇지 못한 현실의 모습에서 내면의 혼란을 느낀다.

한편, 엔하이픈은 지난 12일 앨범 '디멘션: 딜레마(DIMENSION : DILEMMA)'를 발매했다. 이 앨범으로 한터차트 기준 첫 주 판매량 81만 장을 넘겨 자체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디멘션: 딜레마'의 타이틀곡 '테임드-데시드(Tamed-Dashed)'로 엔하이픈은 음악방송 3관왕을 달성했다. '어퍼사이드 드리밍'은 타이틀곡 '테임드-데시드' 활동에 이은 후속곡이다.

'국가의 탄생' 11월1일 첫 공개… '도른자' 포스터

대한민국 시트콤 부활 선언

'국가의 탄생'이 대한민국 시트콤의 부활을 선언했다.

'국가의 탄생'이 OTT 시즌(seezn)에서 오는 11월1일 첫 공개를 확정하고 '도른자' 가족의 모습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국가의 탄생'은 새로운 나라 '파라다이시움'을 건국한 한 가족의 통쾌하고 엉뚱한 좌충우돌 에피소드들을 담은 '헬조선' 대리만족 건국 시트콤이다. 오랜 시간 동안 '병맛' 코미디의 진수를 선보이며 네티즌들의 성원을 받은 만화가 고리타의 네이버 인기 웹툰 '국가의 탄생'을 원작으로 한다.

영화 '위험한 상견례'와 '음치클리닉' 등을 연출한 김진영 감독과 tvN '꽃할배 수사대', KBS2 '별난 며느리' 극본을 담당한 문선희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했다. 신예 신도형, 김도형 작가가 극본의 집필을 맡았다.

여기에 시트콤의 새 역사를 쓴 MBC '세 친구'의 박상면이 카리스마 있는 척하지만 소심한 허당 아빠 '곽성욱' 역을, MBC '하이키! 짧은 다리의 역습' 윤유선은 법대 출신의 운동까지 만능인 엄마 '민복자' 역을 맡아 환상의 부부 '케미'를 펼친다.

그룹 AOA의 멤버 김찬미는 지기 싫어하는 다혈질의 냉미녀 첫째 '곽소연' 역을, SF9의 멤버 주호는 IQ200의 천재인 둘째 '곽호국' 역을 연기하며 현실 남매 시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장군의 아들·서편제 제작자 이태원씨 별세

임권택·조일성 감독 조문

'아제아제 바라아제', '장군의 아들', '서편제' 등을 제작한 한국 영화계의 거목 이태원 전 태흥영화사 대표의 빈소에는 그와 함께 여러 명작을 만들며 '충무로 삼총사'로 불린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촬영감독 등이 찾아 조문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오후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눈을 감았다. 고인은 지난해 5월 낙상사고를 당해 약 1년 7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이날 빈소가 마련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에는 임권택 감독과 정일성 촬영감독을 비롯해 임상수 감독 등이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임 감독은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 연출부로 1990년대 초반 태흥영화사에서 일한 인연이 있다.

이 대표의 장례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가족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진다.

1938년 평남 평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한국전쟁 때 가족과 떨어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다. 부산에서 상경한 뒤엔 '조직'에 몸을 담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을 하다가 1983년 태창영화사를 인수해 태흥영화사를 설립하며 영화 제작에 나섰다.

그는 임권택 감독, 정일성 촬영감독과 함께 '충무로 삼총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장군의 아들'(1990) '서편제'(1993) '춘향뎐'(2000) '취화선'(2002) 등을 제작했다.

가장 한국적인 소재와 정서를 보여 준 '서편제'는 서울에서 처음 100만 관객을 넘어섰고, '취화선'은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면서 국내 첫 칸 영화제 수상작이 됐다.

고인은 2004년 임 감독의 '하류인생'을 마지막으로 영화 제작 일선에서 물러났다.